

【 해외금융뉴스: 중국 】

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상하이 방카슈랑스 시장

- 11월 13일 중국 상하이 보험업협회가 발표한 생명보험 실적보고서에 따르면, 10월 한 달간 상하이 방카슈랑스의 수입보험료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 - 상하이 소재 30여 개 생명보험회사들의 10월 한 달간 방카슈랑스 수입보험료는 약 9억 2,100만 위안(약 1,900억 원)으로 9월 대비 33.9%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8.5%나 하락한 것으로 집계됨.
 - 특히, 미국 금융위기의 중심에 있는 AIG산하 AIA(American International Assurance)는 가입자 보호기간 내 대량 해지의 영향으로 약 7억 3,800억 위안(약 1,527억 원) 수입보험료 적자를 기록해 전달에 비해 158%나 급락함.
 - 그러나 신화생명(新華人壽) 상하이 지점과 작년 말 생긴 귀화생명(國華人壽)과 같은 일부 중소형 보험사는 영업활동 강화 및 신상품 개발 효과 등에 힘입어 시장점유율을 높이면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남.
- 최근에는 보험감독관리위원회(이하 보감위)의 고강도 제재 조치로 인해 분할납 방식의 보장성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.
 - 투자연동형 보험상품의 위험을 경고하며 일부 단기 고수익 상품에 대해 판매 금지를 한 보감위의 고강도 조치 영향으로 인해 투자형 보험상품의 판매가 줄어든 반면, 보장형 보험상품 판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짐.
 - 과거에는 연납과 일시납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월납, 분기납, 반기납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분할납 선호 현상이 보다 뚜렷해짐.
 - 이는 분할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연납이나 일시납에 비해 납입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생긴 현상으로 분석됨.

(상해증권보 11/14)